

광주형일자리 합작법인 궤도 이탈하나

이사회 개최 비롯 조직구성·인력채용 등 감감 무소식
노동계 반발 여진에 자동차 공장 차질 우려 목소리도

광주형일자리 첫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가 법인설립 이후 행방이 묘연하다. 법인설립 이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던 이사회 개최를 비롯한 조직구성·인력채용 등 법인 운영방향은 오리무중이다. 광주형일자리란 한 축인 지역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목표인 2021년 자동차공장 건립마저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광주시와 그린카진흥원 등에 따르면 GGM은 지난달 법인설립을 마치고 업무에 들어갔다. 박광태 대표이사와 박광식·고병일 이사, 선홍규·이중욱 감사 등 임원진은 오는 2021년 양산을 목표로 산적한 문제들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그린카진흥원에 법인 사무실이 마련됐지만, 법인설립 이전부터 논란을 빚은 대표이사 선임, '반노동계' 이사 추천, 노동이사제 문제가 정리되지 못하면서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법인은 현재 직원이 이사진·감사·지원단 등 10명에 불과해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우선 인력을 채용한 뒤, 조직구성과 공장인력 채용 등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GGM이 정상궤도를 밟아 법인운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지난 15일 열린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광주형일자리를 두고 장연주 의원(정의당 비례대표)과 이용섭 광주시장은 '설전'을 펼쳤다.

장 의원은 노동이사제 도입을 비롯해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총괄할 콘트론타워 구축, GGM에 노동계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방안, 노사 책임경영 실현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특위 구성 등을 중심으로 이 시장에 질문을 던졌다.

▶2면으로 이어짐
/황애란 기자



골드클래스 계열법인 골드에스비건설(주) 박수범 대표이사가 17일 오후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에게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골드클래스 계열법인 골드에스비건설(주) 남구청에 성금 300만원 기탁

광주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골드클래스가 지역사회에 따뜻한 사랑나눔을 펼쳐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7일 광주 남구청에 따르면 골드클래스 계열법인인 골드에스비건설(주)은 이날 오후 3시 청내 구청장실에서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수범 골드에스비건설(주) 대표이사를 비롯해 주월 골드클래스 박장환 현장소장, 김병내 남구청장, 구청 여성가족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수범 대표이사는 다문화가족의 모국방문 시 사용해 달라며 김병내 남구청장에게 3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다문화가족의 친정방문 시 항공권 및 방문환영 선물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박수범 골드에스비건설(주) 대표이사는 "골드클래스는 지역민들의 사랑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가겠다"며 "오늘 전달된 성금이 다문화가족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지역의 대표 건설사인 골드클래스가 연달아 성금을 기탁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남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드클래스는 지난 6월 남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3,000만원을 기탁한 데 이어 지난 9월과 10월 광주 서구청과 나주시에 목욕차량 1대씩을 각각 기증하는 등 사랑나눔을 꾸준히 이어오면서 잔잔한 감동의 물결을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있다.

/김종찬 기자



“차 따르는 법 배웠어요” 17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제13회 광주국제차문화전시회’에서 어린이들이 유아 다례(茶禮)를 선보이고 있다. /김태규 기자

권오봉 여수시장 ‘얼굴 알리기 광고’ 조사

전남선관위 “광양경자청, 국비활용 등 집행 사실관계 확인”

〈속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현 여수시장인 권오봉 전 청장 사퇴 직전 전례없는 광고비를 집행, 지방선거 ‘얼굴 알리기’에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본보 지난 17일자 1면)과 관련해 전남도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전남도선관위는 17일 “권오봉 전 청장의 사퇴 직전 과도한 광고비가 집행됐다는 지적과 관련, 광양경자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광고비 수립과 집행을 두고 권 전 청장의 지방선거 ‘얼굴 알리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조사를 벌여 위법여부를 확인하겠다”며 “특히 광양경자청이 ‘산자부에 내려온 국비를 상환에 맞게 조정해 집행했다’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 국비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보겠다”고 강조했다.

도선관위는 이어 “내년 총선이 다가온 만큼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권 시장의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적이고 적극적인 선거운동의 목적성 등이 입증돼야 하므로, 광양경자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광양경자청은 한 해 평균 1억 4,000만원 수준이던 광고비를 지난 2017년 44% 증액해 2억 2,000만원을 집행했다. 이중 방송광고비는 9,300만원으로 전년 3,600만원에 비해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종합방송채널인 A사에는 4,500만원의 광고비를 지급했고, 지역방송사인 B사에는 1,500만원, 전남 동부권 소식을

전하는 C사에는 1,100만원의 광고비가 집행됐다.

당시 권 전 청장은 임기를 9개월여 남겨 채 사표를 제출, 2017년 10월 23일 퇴임했다. 퇴임 직후인 10월 31일 민주당에 입당해 정치에 입문했고, 이듬해 6월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여수시장에 당선됐다.

광양경자청이 광고비를 크게 늘린 2017년은 정치에 입문한 권 전 청장의 사퇴시기와 맞물려, 광양경자청이 현세를 들어 지방선거에 나서는 청장의 ‘얼굴 알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 권 전 청장은 수천만원의 광고비가 집행된 A사와 B사 대담프로그램에 10여분간 출연하기도 했다.

/정근산 기자

국제농업박람회 개막... 11일간 대장정

세계 36개 나라 447개 기업·단체·기관이 참여하는 농업종합축제의 장 ‘2019 국제농업박람회’가 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재)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가 주관하는 올해 박람회는 국내외 45만 관람객을 목표로 ▲여성농업마당 ▲전시체험마당 ▲상생교류마당 ▲혁신기술마당 ▲홍보판매마당까지 5개 마당 12개 전시·체험·판매관 3개 특별전시로 꾸며졌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선 여성농업인의 활동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4차 산업혁명 및 농업 융복합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는 여성청년농업관을 개관했다. 또 국제농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희망새책’ 세리머니와 홍보대사 송가인씨의 축하공연까지 다채롭게 열렸다.

김영록 전남지사(국제농업박람회이사회장인)는 “전남의 새로운 바람, ‘블루 이코노미’의 중심에 농업이 있다”며 “2019국제농업박람회를 통해 농업의 혁신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중흥

나주호를 누리는 명품 골프클럽

나주호의 쾌적한 VIEW, 여유와 휴식을 함께 누리는 36홀 명품골프클럽 - 골드레이크 컨트리클럽

www.goldlake.co.kr

골드레이크 컨트리클럽

GOLDLAKE COUNTRY CLUB

수려한 산세와 나주호수를 그대로 살린 골드레이크 컨트리클럽의 프리미엄 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을 경험하십시오

예약 문의 061-339-3000